


2026년 7월, 출범 확정 제물포구·영종구 서구·검단구		<h1 style="margin: 0;">보 도 자 료</h1>			
		배포일자	2024년 6월 7일(금) 총 2매		
담당 부서	자치행정과	담 당 자	• 자원봉사팀장 • 담당자	허정규 이은숙	☎440-2441 ☎440-244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등 14개 그린파트너 기관, 연합플로깅으로 활동 개시

- 인천시 등 14개 기관, 민관협력 ‘그린파트너 2기 연합플로깅’ 개최 -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린상륙작전 V플로깅 함께할게’ 활동개시 -

인천광역시는 6월 7일 인천 연안동 일대에서 그린파트너 기업 임직원 250명이 참여한 가운데 ‘그린파트너 연합플로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기업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연계 자원봉사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자원봉사 민·관·공 협력

그린파트너는 인천시와 (사)인천시자원봉사센터, 인천상공회의소, SK 인천석유화학, 포스코이앤씨, LG마그나, 신한은행, 대주중공업, 린나이코리아, 인천항만공사,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환경공단 등 14개 기관이 기후위기에 대한 실천적 의지 발현 및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구축한 상호 협력 체계다.

앞서 지난 6월 3일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연계 자원봉사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그린파트너 2기 공동협약’을 체결했고, 이날 행사는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인천은 지리적 특성상 해양쓰레기 유입이 심각하고, 어업 활동 중 버려진 폐어구, 스티로폼, 생활 쓰레기 등이 취약 구역에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깨끗한 인천 앞바다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실천을 유도하고자 대규모 연합 정화 활동 ‘그린상륙작전 V플로깅 함께할게’ 연합활동을 기획했다.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해 추진할 예정이며, 민·관·공이 함께하는 ‘같이’의 ‘가치’가 창출되고, 기업의 사회공헌 자원봉사 문화조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대형 인천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헌신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한 여러분들의 활동 하나하나가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시작”이라며 활동을 격려했다.

정승환 시 자치행정과장은 “그린파트너 여러분들의 환경 실천 자원봉사 활동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함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자원봉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4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